

해남군, '여왕의 과일' 무화과 수확 한창

시설하우스에서 재배, 깨끗하고 높은 당도 최고급 품질 송지면 일원 재배단지 밀집...50여 농가 23ha 재배 예정



해남군 특화작목인 시설 무화과의 수확이 한창이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무화과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외관이 깨끗하고, 당도가 높아 노지 무화과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비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수확량은 줄었지만 품질은 오히려 월등해지면서 시설재배 무화과의 인기는 연일 상승가를 달리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관내 50여농가, 23ha 면적에서 시설무화과를 재배할 예정으로, 해남 남부권인 송지면 일원에는 시설하우스 무화과 재배 단지가 밀집되어 있다.

해남에서 생산되는 시설 무화과는 최신 하우스 시설에서 상자를 이용한 수경재배로 생산되기 때문에 껍질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높은 당도와 치밀한 조직으로 최고급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무화과연구회 전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땅끝무화과주식회사를 설립, 공동작업을 통해 당도와 무게 등 규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출하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해남 시설무화과는 7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생산되며, 연간 390여톤을 생산하고 있다. 수확된 무화과는 농가 직거래 및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생과뿐 아니라 잼, 말랭이, 식초, 즙으로도 가공해 판매한다.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어 '여왕의 과일'로 불리는 무화과는 알칼리성 건강식품으로 항암 효과가 주목받고 있으며, 풍부한 섬유질과 단백질 분해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불량과 노화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식물성 콜레스테롤과 칼륨이 풍부해 혈관을 막는 노폐물을 제거하며, 고혈압과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해남군은 무화과 재배농가의 하우스 시설개보수사업, 양액시설, 관수시설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무화과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송지면 군곡리에서 시설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는 황인복씨는 "시설하우스에서 깨끗하게 재배된 해남무화과는 노지무화과에 비해 품질이 매우 뛰어나 해남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며 "유통·보관이 어렵던 시절에는 남부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일이었지만 지금은 당일 배송으로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으므로 맛있는 무화과 많이 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조신이공대, 뉴스포츠와 웰빙 헬스케어 제공 업무협약 체결

장흥군은 23일 조신이공대와 장흥군민의 스포츠 경험 확대와 웰빙 헬스케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생활스포츠 활성화, 스포츠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플라잉디스크, 서플보드, 한궁, 플로어킥링, 킥볼, 토스볼, 패드민턴 등 뉴스포츠를 통한 복지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조순계 조신이공대 총장, 황영국 산학협력 단장, 나승희 스포츠재활학부 교수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지역민 건강증진을 위한 웰빙헬스케어, 스포츠산업 연

구 개발 및 추진 ▲스포츠 경험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포츠재활 및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이다.

장흥군은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한 바다체 체육센터 건립, 군립 야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의 체육 인프라와 조신이공대의 우수한 교육 역량을 결합해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에 나설 것"이라며, "스포츠 복지의 확대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기본교육 실시



9월 1일까지 주당 2회 진행

진도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동체 중심 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진도푸드 허브조성 기본계획을 이

해하고 군민 주도형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당 2회 진행한다.

대상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작목반 등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이며 전체 출석률 70% 이상 출석 시 수료 가능하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문익는 진도군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061-544-0138.

교육 참가자에게는 신활력공동체사업 공모 참여자격과 신활력사업 참여의 특전이 주어진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생산한 농산물 가공·판매와 문화·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대 김영일 교수 등을 초청해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이해와 진도군 정책 ▲로컬푸드·푸드플랜의 이해와 농촌관광사업화 전략 ▲지역자원 상품화 전략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길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역량이 있는 인재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제1회 강진 하맥축제 안전하게 치른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강진군은 제1회 강진 하맥축제를 '하맥표류기'의 주인공 하맥을 브랜드화한 하맥촌 맥주를 내걸고 올해 처음 선보인다. 네덜란드의 맥아와 강진 특산물 쌀귀리를 활용한 오직 강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맥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 제5회 강진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열고 강진경찰서와 소방서, 강진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개 유관기관이 함께 안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축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축제장 안전시설 설치, 대응인력 배치, 직원 교육, 유관기관 대책 방안 협의를 통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첫 맥주축제인 만큼 강진원 군수 주재

로 관계부서장과 음주사고 예방을 중점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안전요원을 기존 축제보다 2~3배이상 증원키로 했다. 음주 후 귀가를 고려해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 미성년자 음주 여부 확인, 주취자 발생 때 전문 경호요원이 제압 후 경찰 인계, 비상사태 발생 때 전담경찰청 기동대 20명 투입 등 음주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9월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축제기간 동안 각종 사건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소방, 의료, 행정 안전대책 본부를 상시 운영한다.

또 주요 행사장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해 위험지역 접근 차단과 안전 사고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및 경비요역을 교통통제, 주차장, 무대 안전 근무 등 행사 전 분야에 배치해 안전한 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